

2022 인천 독서대전 프로그램 공모전

4 책책교환(책으로 책을 교환하는 물물교환) 이벤트

⑦ 추진배경 및 목적

○ 목적 및 필요성

다 읽은 책을 버리거나 헐값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, 동등한 가치를 가진 책으로 교환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책을 만나는 기대감과 즐거움은 물론 물물교환을 통한 재미까지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책을 가진 사람,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면서도 새로운 성격의 이벤트가 더 많은 독서대전 참가자들을 모으고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.

○ 프로그램의 추진방향

교환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, 독서대전을 찾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가 간단하면서도 부담이 없는 프로그램

○ 타시도 유사 사례 : 부산시 동해시 등의 '범시민도서교환전'

다 읽은 책 1권을 기증하면 중고서적 1권으로, 3권을 기증하면 새책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사업.

제안의 세부 내용까지 작성하고 나서 유사사례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 제안의 내용과 유사한 범시민도서교환전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

제안의 내용과의 차이는 범시민도서교환전의 중고서적은 도서관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참가자들의 책을 서로 교환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

또, 제안의 아이디어는 독서대전 기념품이 따르는 랜덤 교환이라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.

⑧ 제안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

■ 개요

다 읽은 책을 가져오면, 다른 참가자가 기증한 다 읽은 책이나 출판사가 기증한 새 책과 현장에서 교환해주는 사업

메시지 남기기, 독서대전 기념품이 함께 증정되는 랜덤 교환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접목

■ 제안의 세부내용

○ 대상

교환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천독서대전에 참여하는 누구나 (2천 명 계획)

○ 교환하는 책의 조건

- 만화, 잡지, 교과서, 문제지 등은 제외
- 변색, 낙서, 찢어짐 등으로 손상이 심한 책은 제외

○ 프로그램 운영 방법

책 교환 방법 1)

출판사에서 기증한 새 책과 교환

<방법>

책 3권을 기증하면 출판사에서 기증한 새 책 1권으로 교환

<절차>

- (1) 책 3권을 방문하여 기증 (3권 이내로 완료되는 연작도 기증 가능 - 앞뒤 책이 모두 있어야 함)
- (2) 주최 측은 기증받은 책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, 통과되면 새 책으로 바로 교환해줌.

<기증받은 책의 활용>

보육원 등 필요한 곳에 기부

책 교환 방법 2)

시민과 시민의 책 1:1 랜덤 교환

<방법>

책 1권을 기증하면 다른 시민이 기증한 책 1권으로 교환

<절차>

- (1) 책 1권을 방문하여 기증 (앞뒤 권이 없는 연작 제외)
- (2) 기증하면서 메모지에 책을 받는 사람을 위한 메모를 작성할 수 있음. (이 책에 얹힌 기억, 잘 읽어주길 바란다는 내용 등) / 필수 또는 권장
- (3) 주최 측은 기증받은 책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, 통과되면 접수 후 교환권 증정
- (4) 주최 측은 기증받은 책들을 모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교환권을 통해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함.

※ 1~2시간 간격으로 교환 시간 운영. 참가자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독서대전을 둘러보거나 강연 등의 다른 프로그램 참여

<랜덤 교환 방법>

- 기증받은 책을 책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 (에코백이나 책봉투에 넣어두는 것으로 간단히 포장)

※ 포장봉투 자체가 또 하나의 기념품이 되며, 예산에 따라서 친환경 소재의 에코백이나 재생 용지로 만든 책봉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)

- 시간이 되면 무작위로 교환권과 책을 교환

※ 많은 참가자가 한꺼번에 몰려도 빠른 교환이 가능하여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.

<랜덤 교환의 장점>

- 시간이 지나 모아진 책을 1:1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책이 없어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
- 많은 책들 중에서 원하는 책을 고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진행과 대응이 가능. (장시간 책을 고르는 사람들이 물리는 문제로 인해서 인원 정체나 혼잡이 발생하는 문제가 없음)
- 랜덤박스 이벤트들처럼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책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와 기대감이 발생
- ※ 확률은 많이 낮지만 만약 자신이 기증한 책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면? 주최측에서 그 책은 다시 봉투에 넣고 다른 책으로 교환해줄 수도 있지만, 책이 다시 한번 읽어 달라고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.
- 미리 준비한 책이 아니라 참가자들 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책을 기증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사람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음.

○ 기타사항

- 참가자는 두 가지의 교환 방법 모두 참가할 수 있으나 각 이벤트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.

예시) 새 책으로 교환은 일일 1번만 가능(다음 날 다른 출판사의 다른 책이 기증되면 다시 참여 가능하게 할 수 있음.)

참가자간 1:1 교환은 2~3권까지 가능한 것으로 제한

- 새 책 교환을 위해 출판사에 책 기증 협조 요청 필요

출판사 자체 기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, 주최측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기관의 협력을 얻어 구매할 수도 있으며, 상황이 어렵다면 새 책 교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.
이벤트의 메인은 참가자들 간의 책으로 하는 물물교환이기 때문

○ 소요예산

(1) 랜덤 책 포장 비용

- 에코백으로 제작 시 1,500원 × 2,000개 = 3백만원
- 책 봉투로 제작 시 (각대봉투)200원 × 2,000개 = 40만원

(2) 메모지 등 기타 비용 : 50만원

= 총 예산 90만원 또는 350만원 추정

※ 자원봉사자로 프로그램 운영

자원봉사자가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 시 10만원 × 2인 × 3일 = 60만원 추가

○ 예상되는 문제점

(1) 참가자가 적을 때

- 기증하는 도서 수 제한 향상
- 참가자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 증정 등의 이벤트 시행

(2) 참가자가 많을 때

- 일 한정 선착순 운영
- 예산 확대 등으로 참여인원 확대 (2천명 -> 3천명)

(3) 참여 횟수에 제한을 두었는데 횟수를 넘겨 참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

- 일부일 것으로 딱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,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시행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게 하는 방법 등 중복 참가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은 많을 것으로 생각됨.

○ 사업의 차별성

- 누구나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
- 교환 대기 시간 중 다른 독서대전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
- 재미와 만족도 모두를 높일 수 있는 사업

○ 인천독서대전 적용 시 방법

- 행사장에 별도 부스 운영
- 이미 부스 또는 유사한 공간이 있는 곳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만 두어 진행

⑨ 기대효과

1. 인천 독서대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증가 기대

2.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면서도 큰 만족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

3. 새 책 교환 시 기증받은 책을 보육원, 미혼모 보호시설 등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것으로 사회 공헌 효과도 발생하는 사업.